

1950년대 서울番地案内圖와 서울商界畧圖에 대한 지도학 및 역사지리학적 고찰

A Cartographic and Historical Geographic Study on the two maps in the 1950's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ybk@sungshin.ac.kr)

장은미(쓰리지코어 부설연구소 emchang@3gcore.com)

본 논문은 대한안내사에서 청사진 형태로 1955년에 발행한 〈서울商界畧圖〉와 1956년에 발행한 〈서울番地案内圖〉에 대한 지도학적 분석과 역사지리학적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번지안내도〉는 미국 캔자스대학(University of Kansas) 지도도서관에 소장된 지도이다. 〈서울상계서도〉는 예일대학교 지도도서관에 소장된 것을 서울학연구소에서 복사본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도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한국전쟁 후인 1955년, 1956년에 발간된 두 지도의 지도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리정보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 대상 지도들을 현대의 수치지도와 비교함으로써 비교지도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현대의 지번도와 지도를 근간으로 지도의 구성요소를 상호 비교하여 상대적인 정확도 및 일관성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지도의 옆에 부가된 광고의 종류를 분석하여 전후의 서울 중심부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결부하여 자료로서의 의미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한국전쟁 후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결부시켜 지도가 포함한 내용을 중심으로 1956년의 서울시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두 지도를 스캐닝해, 벡터라이징 작업과 클리닝작업을 통하여 GIS자료로의 구축과정을 거쳤으며 정확도 확인을 위하여 1:5000 수치지도와의 중첩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지도의 형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도의 필수 구성요소인 縮尺, 方位, 심볼, 凡例, 圖法, 正確度 표시 등의 요소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지도 표현의 일관성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고지도의 회화적 요소를 어떻게 추상화시켰는가의 문제와 주변 광고와의 관계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로 지도의 내용을 통해 1956년 상황의 중구 및 종로구를 중심으로 하여 지번도에 나타난 도로의 계층 정확도와 번지의 밀도부분을 자세히 조사하여 도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로 1956년 지번도의 지도 주변에 있는 64개의 광고, 1955년 지도의 71개의 광고, 지도 내에 포함된 그래픽 및 속성정보를 분석하여 1950년대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로 1:5,000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도로폭과 거리와 각도 등의 지도의 위치적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1:5000의 서울지적·임야약도(2001, 성지문화사)를 활용하여 45년 동안 지번이 당시의 틀과 얼마

나 바뀌었는가를 점검하고, 지번이 유지된 정도를 가늠하였다.

〈서울番地案内圖〉는 읍지의 필사와 묘사형 표현과 일제시대에 간행된 지번도의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圖北과 正北이 45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방위표시와 좌표의 표시가 전혀 없는 1: 11000의 지도이다. 〈서울商界畧圖〉는 방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축척이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서울商界畧圖〉는 주로 주요 시설물 및 사업체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지도이다.

이 지도는 의식주 기본생활, 통과의례에 관련된 광고, 상류층의 대상으로 한 광고가 주이다. 그러나 지도의 상단과 좌단에 첨부된 광고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1956년의 지도에는 병원과 증권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쟁복구시기의 환경 하에 도시환경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근대지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두 지도는 민간발행 광고수주형 지도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으며, 지번 중심, 상호 중심의 주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의 방법론에 의한 지도자료의 디지털화 가능성의 타진 과 그 방법, 비교지도학적인 연구와 〈서울商界畧圖〉에 수록된 광고를 중심으로 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으로 사이버지도 도서관의 설립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의 지도뿐만 아니라 근대와 1900년대 후반의 지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에 소장된 근대의 지도도 분실되기 전에 디지털 자료화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